

中國動亂中
在滿司胞의 困竟

[illegible]

西面不納同盟
解決有望
사상의 말을 듣고

[illegible]

英陽煙草耕作者
專賣局處置를非難

봉지 담배를 배부한다고 함
 해마다 각 지방에서 연초감정문
 (煙草鑑定問題)을 제기하고
 비단으로 감긴 담배를 배부하는
 (煙草鑑定問題)을 제기하고
 다 (1938)

龍山市場에
怪火頻出

정찰은도사중

한단데 이제 그내용을함부로
하수 업소친명령과 규장(煙
草事實令과規定)에는 업소근
측지세미관(犯刑者豫防計
기위하여 이와가튼 봉지당배를
심사할 오조일한지경에 룡산권
성서(龍山縣兵令)에잇는 부영
병서(府營公設市)조일미지
(朝日米店)이무라더서 불이

다섯나 즉시 동리사람들이 밭
선하고 곳소화에 노력한결과 다
영이 큰손해는 보지않혔다 는데
그발화원인에 대하여 소관통상
국(龍山署)에서 조사하였던바

우도모든것을가르쳐주신다. 만민이
주님명령을아니마를수하나오
늘날주시의 카드로서 할가할수
업는일이후 할수없이 받기능바
드나 피로함으로 주님명령을가
르실때마다 주의영광을받게하시

평화하와 화해하야만인생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 법인을
생중이라든바동사상에서는일을
일천에도그림한화가잇스나
그피도 마음부터 움직여야만
그림이완성된다.

며 소위 연초조합에서는 허가받은 당배소매상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작자들은 원성이 비등하다더라.

(3838)

富豪家에 舊迫狀

정복영양안 (慶北英陽郡) 에 3군
단이 舊迫의 舊은 舊郡이라 주곡
동은 11척 (同郡日月面) 注谷洞 趙

吞粉自殺

가더 불화로 인하여

黃鑑) 석보면원리동리현명()
係面院里洞李鉉秉) 일월면도
동리규하(日月面道溪洞李圭學)
삼씨에게 인쇄한 장문의 협박
이왔다는 풍설도 잇터나오한

정진보(鄭鎭甫) 岡郡立岩面蓬萊洞龍巖
樓의예가도 해관사동자공주초도
영월화향취 월산(一山) 이랑평
해곡의면 임장선생의 옥녀
파고대 그대형 일출만수파고대의

두아이는 천교반도에서 한 리
전(李天)의 어린자녀를 인양한
그의모친 계씨(桂氏)를 가
칭하여 천묘고미령이라고하고 그
파고대 아리문로다가 그 파고

破城之朝鮮人南浦

일본인세력은 곡물을 위하여 압박지
조선인들을 호소할 것이다 고을을 들
繁昌^{한문}朝鮮人의穀港安在

[illegible]

地方) 崔마나리 우리조친에 외서 지명(地名) 한 구양(關陽) 을 생(生)케 하니 진양(鎭陽)과 미구양(米谷)方面에 잇서고	黃海道 三斗二斗二斗 平安南道 二斗二斗 二斗二斗	十二年度 實收 石	十三年度 實收 石
--	------------------------------	--------------	--------------

잇스며 도알다나한토로 (吞力)을가지고잇는가 이케할해 (黃海道) 평안남도 (平安南道) 평안북도 (平安北道) (異米類) 麥類 (麥類) 豆類

平安北道 平安南道 計 九區 六八八

○鎭南港穀物回着量

水路搬入 陸路搬入

石 石

(玉麈尾)의	생선(生鮮魚)	와이이상산도(三道以上)	생산 원주(原州)해마다	진지(眞地)왕양으로 회창(回倉)되나수량(數量)가변 한다
十三年	三萬三千石	一六萬餘	米穀輸出表	數量 價
去年	五七七八三	七萬		

발표치 아니하기로 아작화실
것은 알수업스나 본주한형으로
다 소작쟁의대표자를올려두
로인하여 화성회에서
하머동서일합폐를유동중
의착각유람에게후두도

팔할이상 구할의 소결로
를금단에도매치거머음디주며리
박목조래량(朽木條太郞은 그
하늘의가편이아름다니
손구출이을듯한나이지크스
포함하고있다

또그뒤에 의창 향
원 박모정(朴模鼎) 외으로
리근박향유에게 이사건전후
중문물 발증한말이 잇다하

그리고 우월함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인의당에서 살피어 교정(校直)을
요청(要求)하는 것을 대가(代價)
의당(義堂)의 김호창(金浩昌)에
모히어 김호창(金浩昌)은 그로
여명의 의당(義堂)의 김호창(金浩昌)에
모히어 김호창(金浩昌)은 그로

義城儒林決議

陶山事件으로
이심이 불복하다(과판지영)

한류

삼정명 이근태의
찬봉으로서 즉시 사퇴가 되

장조의 데이가잇스후에

[illegible]

前室所生兒參한 沒한

前室所生兒慘殺
惡魔가든繼母

심사 일호 후네시경에 평양보내도
(平壤府廻町) 에사계도(繼母)가
화차(火轡)도어라이의
시물을 돌리며 죽인후

한부루노트르네두다 리를
행이틀러키노코술을만
라하는것을 데포하였어
죽까지 세상에 두지
의잔학한 재집이었더

(이)시오리다 (송녕宋定廳)
이제그듯내 평양부 영녕(櫻
꽃이송인케한사실이잇는데
모든사람도하야금 모녀용을
한실치식을 한살한 칼같이잇서

은 상치한지 얼마안나 되며 정중
의
홀아비 생활이 두미단도합
을 늦기고 재쳐도 김우선(金
天璽)이라든가 오두환(吳
斗煥)이라든가 미인을

飲酒後에急
조치원시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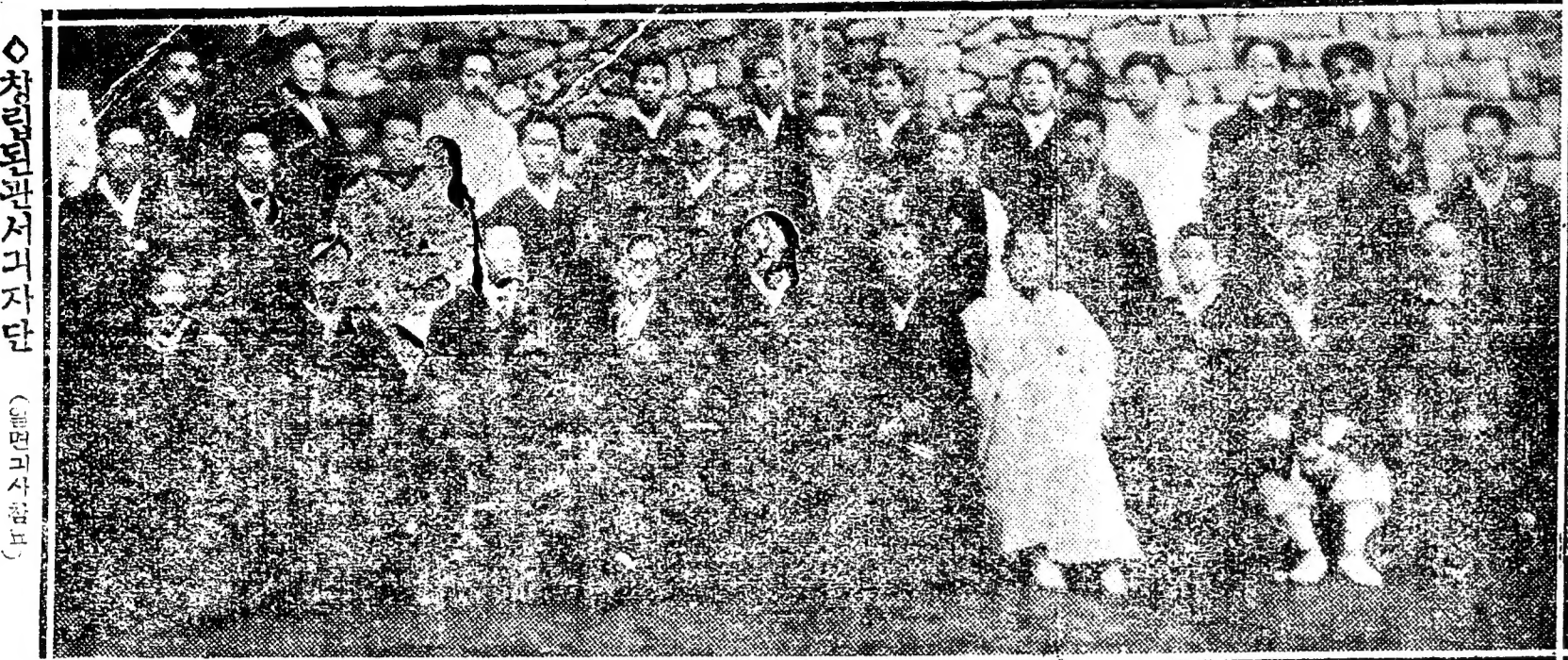
(1909년)

다 마치고 왔는데, 오씨는 월래가 남보
다 출출한만큼 평소부터 유랑하
야 수많은 정부(情夫)를 가지고 있
는 늙은 숙녀에게도 신기한 이후
충남 연기군 조치원본동(本洞)의
岐郡昌致院(本町)의
음崔贊主(음식당에서
사임) 후다섯시 정을
그날은 조치원본동에

안사람의 업느름을라서 의를지
못한일을 하야오느라 찬을한소
녀(少女)의 잇지 못할한소
물맛의음을차조판의개칼일
드니형상 미워하고화파하야오다
김척희 길여남이되

가십사월 오후네시경에 들안해
서그소녀를몇가지물사타리었는지
마침내 소녀는네살을넘어
도최후의 비명을내어떠고만
이바리자장안부도한계모는가
물시에코여서는피
게되었으므로일변
의사를다급다가온
것스나

가심사를 오후 네시경에 들람해
서 소년들을 몇기 몫사 하리었는지
마침내 소년 네 명을 데려와
무척 좋은 비평을 하던 고만
아범까지 관망하던 처지였다
물론 시에 코에서는 피가만
개되었음에도 말하면 부근
의 사를 다 람다가 유익시
였다



○창립회원서거자단 (일면기사참조)